잠복하는 공포

The Lurking Fear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3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Lurking Fear" (Home Brew 1923)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48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굴뚝 위의 그림자

잠복하는 공포를 찾아 템페스트 산 정상의 버려진 저택으로 향하던 밤, 공기 중에는 천둥소리가 감돌고 있었다. 나 혼자 간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나는 무모함보다는 기괴하고 끔찍한 것에 매료된 상태였고, 그 갈망은 문학과 현실 속에서 기이한 공포를 찾아 헤매는 나의 삶을 만들어왔다. 때가 되어 내가 불러들인 충직하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동행했다. 그들은 특유의 적성 덕분에 나의 소름 끼치는 탐사 과정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이들이었다.

한 달 전, 그 기괴한 공포와 악몽 같은 죽음이 휩쓸고 간 뒤에도 기자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기에, 우리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들을 원치 않았다. 차라리 그들에게 수색을 함께하자고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이 비밀을 이토록 오랫동안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몰아세우거나, 혹은 이 사건이 내포한 악마 같은 진실에 세상 자체가 미쳐버릴까 두려워 혼자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된다.

이 억눌린 공포가 나를 광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어차피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마당에 차라리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유령처럼 황량한 산에 어떤 종류의 공포가 잠복해 있었는지 아는 것은, 오직 나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원시림과 구릉이 이어진 길을 몇 마일이나 달렸고, 마침내 나무가 우거진 오르막길이 앞을 가로막았다. 밤의

어둠 속에서 마주한 풍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조사하러 몰려드는 인파도 없었기에, 우리는 시선을 끌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세틸렌 전조등을 켜고 싶다는 유혹을 자주 느꼈다. 어둠이 내린 뒤의 풍경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을 배회하는 공포의 정체를 몰랐더라도, 나는 이 땅이 품은 병적인 기운을 분명 알아차렸을 것이다. 야생 동물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죽음이 눈앞에서 비웃음을 흘릴 때, 짐승들은 영리하게 몸을 숨기는 법이다. 번개에 그을린 고목들은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고 뒤틀려 있었으며, 다른 식물들 또한 기괴할 정도로 무성하고 열병에 걸린 듯 꿈틀거렸다. 낙뢰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잡초 섞인 땅 위에는 기묘한 언덕과 둔덕들이 솟아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뱀이나 죽은 자의 해골을 연상시켰다.

템페스트 산에는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 지역을 세상에 처음 알린 참혹한 재앙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통해 즉시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캐츠킬 산맥 중에서도 외지고 쓸쓸한 고지대다. 과거 네덜란드 문명이 희미하고 일시적으로 발을 들였던 곳이지만, 문명이 물러간 자리에는 무너져가는 저택 몇 채와 외딴 산비탈의 초라한 마을에 모여 사는 퇴락한 정착민들만이 남겨졌다. 주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 평범한 이들은 그곳을 거의 찾지 않았으며, 경찰이 생긴 지금도 순찰대는 가끔씩만 들를 뿐이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인근 마을들 사이에서 오래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가끔 계곡을 내려와 직접 짠 바구니를 생필품과 맞바꾸는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도, 그 공포는 언제나 단골 화제로 등장한다.

오지 밖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반쯤 스치듯 보았던 괴물의 형상을 앞뒤 맞지 않고 과장되게 묘사한, 서로 상충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들을 말이다. 하지만 농부나 마을 주민 중 마텐스 저택에 기괴한 유령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설령 거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저택을 찾아간 조사관들이 유령의 증거를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지역의 역사 자체가 그런 의심을 허용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마텐스의 망령에 관한 기이한 신화를 들려주곤 했다. 그 신화는 마텐스 가문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기묘하고 이질적인 눈매, 길고도 비정상적인 가문의 기록, 그리고 가문에 저주를 내린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나를 그 현장으로 몰아넣은 공포는, 산악인들이 떠들던 가장 터무니없는 전설이 갑작스럽고도 불길하게 현실로 증명된 사건이었다. 전례 없는 격렬한 뇌우가 몰아친 어느 여름밤, 시골 마을은 단순한 환각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단 점유자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아수라장으로 뒤덮였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에 대해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며 울부짖었고, 그들의 말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그 괴물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으나, 어느 마을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만으로도 기어오는 죽음이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주 경찰들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곳을 향해 몸을 떨며 나아가는 산악인들을 뒤따랐다. 죽음은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낙뢰가 떨어진 후 정착촌 마을 중 한 곳의 지반이 내려앉으

면서 악취 나는 판잣집 몇 채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 재산 피해는 뒤이어 나타난 유기적인 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미미했다.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민 75명 중, 살아있는 개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뒤엉킨 흙바닥은 피와 인체의 잔해로 뒤덮여 있었으며, 이는 악마의 이빨과 발톱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학살의 현장에서 멀리 이어지는 발자국이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어떤 끔찍한 짐승이 원인임에 빠르게 동의했다. 이 기괴한 죽음들이 그저 타락한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잡한 살인 사건일 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추정 인구 중 약 25명 정도가 시신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절반도 안 되는 수의 존재가 어떻게 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어느 여름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그 결과 시신들이 처참하게 짓이겨지고 씹히고 할퀴어진 채 버려진 죽음의 마을이 남았다는 것이다.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이 공포를 곧장 마텐스 저택의 괴담과 연결 지었다. 비록 두 장소 사이의 거리가 3마일 넘게 떨어져 있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주 경찰들은 좀 더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저택을 수사 대상에 가볍게 포함할 뿐이었고, 저택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은 지칠 줄 모르는 정성으로 저택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을 뒤엎고, 연못과 시냇물을 훑었으며, 덤불을 헤치고 인근 숲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들이닥친 죽음은 파괴의 흔적만을 남겼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멀리서 천둥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던 어느 여름 밤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서 있는 자동차를 뒤로한 채, 무기를 든 두 동료와 함께 템페스트 산의 언덕진 능선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전등을 비추자 앞쪽의 거대한 참나무들 사이로 유령처럼 창백한 회색 벽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괴한 밤의 정적과 흔들리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상자처럼 거대하게 쌓인 그 구조물은 낮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공포의 흔적들을 모호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떤 가설을 확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천둥소리가 저 무시무시한 은신처로부터 죽음의 악마를 불러낸다고 믿었다. 그 악마가 실체를 가진 존재든, 혹은 형체 없는 역병 같은 것이든, 나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야 말 작정이었다.

* * * * *

나는 이미 폐허를 샅샅이 뒤져두었기에 계획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 나는 마을 전설 속에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얀 마텐스의 옛 방을 밤샘 감시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 오래된 희생자의 방이야말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가로세로 약 20피트 정도 되는 이 방에는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한때 가구였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은 저택 2층의 동남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대한 동쪽 창문과 좁은 남쪽 창문이 있었으나 유리창이나 덧창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커다란 창문 맞은편에는 탕아를 묘사한 성경 구절 타일이 박힌 거대한 네덜란드식 벽난로가 있었고, 좁은 창문 맞은편에는 벽 안으로 움푹 들어간 넓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나무들에 가로막힌 천둥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우선 가져온 밧줄 사다리 세 개를 커다란 창가 선반에 나란히 고정했다. 미리 확인해 두었기에, 이 사다리들이 밖의 잔디밭 위 적당한 지점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다음 우리 세 명은 다른 방에서 커다란 사주식 침대 틀을 끌어와 창문에 바짝 붙여 놓았다. 침대 위에 전나무 가지를 깔아둔 뒤, 자동 권총을 뽑아 든 채 우리 모두 그 위에 올라앉았다. 두 명은 긴장을 풀고 쉬었으나, 나머지 한 명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악마가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든 탈출할 길은 마련되어 있었다. 집 안에서 나타나면 창문의 사다리를 이용하면 되었고, 밖에서 나타나면 문과 계단을 이용하면 되었다. 과거의 전례로 미루어 볼 때,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괴물이 우리를 멀리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정부터 1시까지 나는 깨어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집과 무방비하게 열린 창문,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천둥과 번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리만큼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두 동료 사이에 앉아 있었다. 조지 베넷은 창가 쪽에, 윌리엄 토비는 벽난로 쪽에

자리를 잡았다. 베넷 역시 나처럼 기이한 졸음에 휩싸였는지 이미 잠든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토비에게 다음번 보초를 맡기기로 했다. 비록 그조차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말이다. 내가 그 벽난로를 얼마나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점점 거세지는 천둥소리가 내 꿈에 영향을 준 모양이다. 잠시 잠이 들 때마다 나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창가 쪽에서 자던 이가 불안하게 팔을 뻗어 내 가슴 위로 던지는 바람에, 나는 잠결에 잠시 깨어났다. 토비가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맑지는 않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안감을 느꼈다. 악의 기운이 이토록 뼈저리게 나를 짓누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후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밤이 깊어지며 내 생애 그 어떤 경험이나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기괴한 소음 속에서 내 정신은 환상적인 혼돈 속을 헤매다 튀어 올랐다.

그 비명 속에서, 인간의 공포와 고통이 빚어낸 가장 깊은 영혼은 망각이라는 칠흑 같은 문을 붙잡고 절망적으로, 미친 듯이 할퀴어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심연 속으로 공포와 결정 같은 고통이 멀어지며 메아리칠 때, 나는 붉은 광기와 악마의 조롱 속에서 깨어났다. 빛은 없었다. 하지만 오른쪽의 빈 공간을 통해 토비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터였다. 내 왼쪽에서 잠든 이의 묵직한 팔은 여전히 내 가슴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산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낙뢰가 내리쳤다. 번개는 백발의 숲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묘지까지 환히 비추었고, 뒤틀린 나무들 중 가장 거대한 고목을 산산조각 냈다. 괴물 같은 화염구가 내뿜는 악마 같은 섬광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창밖에서 쏟아진 눈부신 빛은 내 시선이 한시도 떼지 못했던 벽난로 위 굴뚝에 그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리웠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굴뚝에 비친 그림자는 조지 베넷이나 그 어떤 인간의 형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분화구에서 기어 올라온, 신성모독적인 변종이었다. 어떤 정신으로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어떤 펜으로도 부분조차 묘사할 수 없는, 이름도 형체도 없는 흉물이었다.

다음 순간, 나는 저주받은 저택에 홀로 남겨져 몸을 떨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조지 베넷과 윌리엄 토비는 싸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그 뒤로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2. 폭풍 속의 행인

숲에 둘러싸인 그 저택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레퍼츠 코너스의 호텔 방에 누워 신경이 쇠약해진 채 앓아누워 있었다. 어떻게 자동차까지 가서 시동을 걸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라곤, 거대한 팔을 휘두르는 듯한 거목들과 악마처럼 중얼

거리는 천둥소리, 그리고 그 지역 곳곳에 낮게 솟아 점점이 흩어진 언덕 위로 스쳐 지나가던 카론의 그림자뿐이다.

뇌를 파괴할 듯한 그 그림자의 형상을 떠올리며 몸서리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내가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 중 하나를 파헤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주 저 멀리 심연의 공허 속에 존재하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재앙 중 하나였다. 우리는 가끔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서 그 재앙이 내는 희미한 악마의 긁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유한한 시야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비롭게 격리해 주었다. 내가 목격한 그 그림자를 감히 분석하거나 정체를 밝히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날 밤, 나와 창문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려는 본능을 떨쳐낼 수 없을 때마다 나는 몸서리쳤다. 만약 그것이 으르렁거리거나, 울부짖거나, 혹은 낄낄거리며 웃기라도 했다면, 차라리 그 심연 같은 흉측함이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것은 묵직한 팔이나 앞다리를 내 가슴 위에 얹어 놓았었다. 분명 생명체였거나, 혹은 한때 생명체였던 것이 틀림없다. 내가 침입했던 방의 주인인 얀 마텐스는 저택 근처 묘지에 묻혔다. 만약 살아 있다면, 베넷과 토비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왜 그것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나를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일까? 졸음이 숨 막히도록 밀려온다. 꿈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그 잠복하는 공포를 추적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무모

할 정도로 무지했던 당시의 나는, 설령 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남는 것보다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경로를 구상했다. 누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지, 그리고 두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악몽 같은 그림자를 드리운 그 존재를 어떻게 추적해야 할지를 말이다.

레퍼츠 코너스에서 내가 주로 교류하던 이들은 싹싹한 성격의 기자들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비극의 마지막 잔향을 수집하기 위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 중에서 동료를 한 명 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민하면 할수록 마음은 한 사람, 아서 먼로에게로 기울었다. 그는 서른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검고 마른 체격의 사내였다. 그의 교육 수준과 취향, 지성, 그리고 기질을 보건대, 그는 관습적인 관념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임이 분명해 보였다.

9월 초의 어느 오후, 아서 먼로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매우 예리하고 신중한 판단력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게다가 그의 조언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그는 더 상세한 역사적, 지리적 자료를 확보하여 대비할 때까지 마텐스 저택에서의 조사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의 주도하에 우리는 그 끔찍한 마텐스 가문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 인근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놀랍게도 가문의 내력을 밝혀줄 귀중한 조상 일기를 소유한 남자를 찾아냈다. 우리는 또한 공포와 혼란

을 피해 더 외딴 산비탈로 달아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산골 사람들과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계획을 수정했다. 저택의 상세한 역사를 바탕으로 저택을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조사하는 최종 과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무단 점유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비극적 사건의 현장들을 먼저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처음에는 그리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류해 보니 꽤 의미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보고된 공포 사건의 수는, 기피 대상이 된 그 저택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거나, 혹은 병적으로 과잉 성장한 숲이 저택과 연결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그 공포스러운 사건은, 저택이나 그와 연결된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잠복하는 공포의 정체와 생김새에 관해서라면, 겁에 질려 정신을 놓은 오두막 거주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한 입으로 그것을 뱀이라 불렀다가, 거인이라 불렀다. 천둥의 악마나 박쥐라고 했다가, 다시 독수리나 걸어 다니는 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기 폭풍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 괴물에게 날개가 있다고 암시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탁 트인 공간을 혐오한다는 점을 근거로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이 더 가능성 높은 이론이라고 믿었다. 다만 이 가설과 유일하게 충돌하는 점은, 괴물이 저

질렀다고 전해지는 그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해야만 했던 그 엄청난 속도뿐이었다.

그 무단 점유자들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여러 면에서 기묘할 정도로 호감을 주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한 혈통과 숨 막히는 고립 탓에 진화의 사다리에서 완만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단순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외부인을 두려워했으나 서서히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마침내 우리가 잠복하는 공포를 찾아 헤매며 저택의 덤불을 헤치고 칸막이들을 모두 뜯어낼 때, 그들은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했다. 베넷과 토비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그들은 진심으로 괴로워했다. 우리를 돕고 싶어 하면서도, 실종된 이들이 자신들의 사라진 일족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생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당한 것처럼, 그들 중 수많은 이가 실제로 살해되어 치워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비극이 닥칠지 불안해하며 기다릴 뿐이었다.

불운한 무허가 정착촌에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곳은 콘 산과 메이플 힐이라 불리는 두 언덕 사이, 나무 한 그루 없이 움푹 파인 아늑한 골짜기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은 콘 산보다는 메이플 힐에 더 가까웠는데, 실제로 몇몇 조잡한 거처들은 메이플 힐의 경사면을 파서 만든 움집 형태였다. 지리적으로 보면 마을은 템페스트 산 기슭에서 북서쪽으로 약 2마일, 참나무로 둘러싸인 저택에서는 3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을에서 저택에 이르는 거리 중 마을 쪽에서 2.25마일가량은 완전히 탁 트인 벌판이었다. 그 평원은 뱀처럼 낮게 솟은 둔덕들이 드

문드문 있을 뿐 대체로 평탄했으며, 풀과 여기저기 흩어진 잡초만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지형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악마가 콘 산을 통해 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콘 산은 숲이 우거진 남쪽 연장선이 템페스트 산의 가장 서쪽 돌출부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다. 또한 우리는 지면이 뒤집힌 흔적을 추적한 끝에, 그것이 메이플 힐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메이플 힐의 비탈에는 높고 외롭게 부러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나무의 옆면이 악마를 소환한 번개가 내리친 지점이었다.

*****

아서 먼로와 나는 스무 번도 넘게 침범당한 마을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막막한 허탈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공포뿐이었다. 그토록 압도적인 사건들이 휘몰아친 뒤에 마주한 풍경이 이토록 아무런 단서도 없이 공허하다는 사실은, 공포스럽고 기괴한 일들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비현실적이었다. 우리는 납빛으로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를 배회했다. 무력감과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뒤섞여 만들어낸, 비극적이고도 방향 없는 열의를 품은 채로 말이다.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세밀하게 살폈다. 오두막집을 하나하나 다시 뒤졌고, 산비탈의 구덩이마다 시신이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인접한 경사면의 가시 돋친 발치까지 훑으며 굴이나 동굴이 있는지 살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럼에도 앞서 말했듯, 정체 모를 새로운 공포가 위협적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거대한 박쥐 날개를 가진 그리핀들

이 산봉우리마다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앉아,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본 아바돈의 눈으로 우리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시야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템페스트 산 너머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육중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런 오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당연히 우리를 긴장시켰으나, 밤중에 들었을 때만큼 공포스럽지는 않았다. 우리는 차라리 폭풍우가 어둠이 짙게 깔린 뒤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산등성이를 뒤지던 일을 멈추고, 근처 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조사를 도울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겁이 많았으나, 젊은이 몇 명은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해주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도움을 약속했다.

하지만 몸을 돌리기가 무섭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센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는 당장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하늘은 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워 발을 헛디디며 간신히 나아갔다. 다행히 번개가 수시로 번쩍였고 마을 지리도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우리는 곧 그 마을에서 가장 틈새가 적은 오두막 하나를 찾아냈다. 통나무와 판자를 뒤섞어 만든 조잡한 건물이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문과 작은 창문 하나가 모두 메이플 힐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몰아치는 바람과 비를 막으려 문을 걸어 잠근 뒤, 그동안 여러 번 뒤져가며 위치를 익혀두었던 투박한 창문 덧창을 끼워 넣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상자 위에 앉아 있자니 참으로 암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가끔씩 휴대용 전등을 비추어 주위를 살폈다. 벽의

틈새 사이로 번갯불이 간간이 스며들었다. 오후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하늘이 워낙 어두웠던 탓에, 번개가 칠 때마다 그 빛은 더욱 강렬하게 번뜩였다.

폭풍우 속에서 밤을 지새우다 보니, 템페스트 산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다. 그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난 뒤로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기묘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오든 실내에서 나타나든, 세 명의 감시자에게 다가오던 그 악마는 왜 양옆의 사내들부터 건드리고 정작 가운데에 있던 나는 거대한 화염구가 나타나 쫓아버릴 때까지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었을까? 왜 그것은 어느 방향에서 접근했든 상관없이, 나를 두 번째 희생자로 삼아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사내들을 잡아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대체 얼마나 길고 거대한 촉수를 뻗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들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나를 남겨 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였다. 마치 이 고뇌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듯, 극적인 연출처럼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낙뢰가 내리쳤고 뒤이어 땅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늑대처럼 울부짖던 바람은 악마의 울음소리 같은 광기 어린 절정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메이플 언덕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또다시 벼락을 맞았으리라 확신했다. 먼로가 상자에서 일어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작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가 덧창을 내리자 귀를 찢는 듯한 바람과 빗줄기가 안으로 휘몰아쳤고, 그 소음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창밖으로 몸을 기울인 채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수라장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가만히 기다렸다.

점차 바람이 잦아들고 기묘한 어둠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되도록 폭풍이 밤까지 이어지기를 바랐으나, 등 뒤의 나무 구멍 사이로 몰래 스며든 햇살이 그럴 가능성을 없애 버렸다. 나는 먼로에게 소나기가 다시 내리더라도 일단 빛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투박한 문을 걸쇠에서 풀고 열었다.

문밖의 땅은 진흙과 웅덩이가 뒤섞인 기괴한 모습이었고, 가벼운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가 새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동료가 창밖을 향해 말없이 몸을 기울인 채 무엇에 그토록 정신이 팔려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기댄 곳으로 다가가 어깨를 건드려 보았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난스럽게 그를 흔들어 돌려세우려던 순간, 나는 암세포 같은 공포의 질식할 듯한 촉수를 느꼈다. 그 뿌리는 무한한 과거와, 시간을 초월하여 깃드는 밤의 헤아릴 수 없는 심연까지 뻗어 있었다.

아서 먼로는 죽었다. 짓이겨지고 파헤쳐진 그의 머리 잔해에는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라 부를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3. 붉은 섬광의 의미

1921년 11월 8일,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나는 시체 안치소의 그림자처럼 음산한 빛을 내뿜는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얀 마텐스의 무덤을 미련하게도 홀로 파헤치고 있었다. 뇌우가 몰아칠 조짐이 보여

오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둠이 내리고 광기 어린 덤불 위로 폭풍우가 쏟아지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8월 5일 이후 겪은 일들 때문에 내 정신이 부분적으로 망가졌다고 믿는다. 저택에서 마주한 악마 같은 그림자, 전반적인 긴장과 실망감, 그리고 10월의 폭풍우 속에서 그 마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말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를 위해 무덤을 팠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저 아서 먼로가 길을 잃고 떠돌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두었다. 사람들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곳에 살던 뜨내기들은 진상을 눈치챘을지도 모르나, 나는 그들을 더 겁줄 용기가 없었다. 나 자신조차 이상할 정도로 냉담해진 듯했다. 저택에서 겪은 충격이 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상상 속에서 재앙과도 같은 거대한 존재로 부풀어 오른 그 공포를 추적하는 일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아서 먼로의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나는 그 추적에 관한 모든 것을 침묵 속에 홀로 간직하겠노라 맹세했다.

내가 발굴 작업을 하던 그 현장만 보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았을 것이다. 불길하고 원시적인 나무들은 신성 모독적일 만큼 거대하고 기괴하며 오래되어, 마치 지옥의 드루이드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나무들은 천둥소리를 짓누르고 할퀴는 듯한 바람을 잠재웠으며, 빗줄기조차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다.

희미하게 번뜩이는 번갯불이 비치는 배경에는 흉측하게 굵힌 나무 줄기 너머로,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버려진 저택의 축축한 돌벽이 솟아 있었다.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는 버려진 네덜란드식 정원이 있었다. 정원의 산책로와 화단은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하얗고 곰팡이 핀 악취 나는 식물들로 오염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기형적으로 뒤틀린 나무들이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어댔고, 나무뿌리는 불경한 묘석들을 들어 올린 채 땅 밑에 누워 있는 것들로부터 독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태고의 숲이 품은 어둠 속에서 부패하고 곪아가는 갈색 낙엽 더미 아래로, 번개가 내리꽂힌 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길한 둔덕들의 윤곽이 이따금씩 내 눈에 들어왔다.

역사가 나를 이 고색창연한 무덤 앞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조롱 섞인 사탄 숭배로 끝을 맺은 뒤, 내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역사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 잠복하는 공포가 실체가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한밤중의 번개를 타고 달리는 늑대의 송곳니를 가진 유령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아서 먼로와 함께 조사하며 파헤친 방대한 지역 전승을 근거로, 그 유령이 1762년에 사망한 얀 마텐스의 영혼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이토록 어리석게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마텐스 저택은 1670년, 뉴암스테르담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게릿 마텐스에 의해 세워졌다. 영국 통치 아래 질서가 바뀌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요함과 기이한 풍광이 마음에 들어 외딴 숲속 산등성이에 이 장엄한 저택을 지었다. 이 터에서 겪은 유일

하고도 실질적인 실망은 여름마다 몰아치는 격렬한 뇌우였다. 마텐스 씨는 언덕을 고르고 저택을 지을 당시만 해도, 이러한 잦은 자연의 분노를 그저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곳이 유독 그런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임을 깨달았다. 결국 잦은 폭풍우가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폭풍의 광란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지하실을 개조했다.

게릿 마텐스 본인에 비하면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훨씬 적다. 후손들은 모두 영국식 문명을 증오하도록 길러졌으며, 그 문명을 받아들인 식민지인들을 멀리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지극히 고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폐쇄적인 생활 탓에 그들의 말과 이해력이 모두 둔해졌다고 말했다. 외모 면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눈의 특징이 나타났다. 대개 한쪽 눈은 푸른색이고 다른 쪽 눈은 갈색이었다. 사회적 교류는 점점 더 줄어들더니, 마침내 그들은 저택 주변의 수많은 하인 계층과 서로 혼인하기에 이르렀다. 북적이는 가문 구성원 중 상당수는 타락하여 계곡 너머로 떠나갔고, 훗날 가련한 무허가 거주민들을 만들어낸 잡종 인구 속에 섞여 들었다. 남은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택을 지키며 완고하게 버텼다. 그들은 갈수록 폐쇄적이고 과묵해졌으나, 빈번하게 몰아치는 뇌우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기질을 보였다.

이 모든 정보는 젊은 얀 마텐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알바니 협약에 관한 소식이 템페스트 산에 전해졌을 때, 그는 일종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식민지군에 입대했다. 그는 게릿의 후손 중 처음으로 넓은 세상을 경험한 인물이었다. 6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1760년에 돌

아왔을 때, 그는 마텐스 가문 특유의 눈매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삼촌, 형제들로부터 이방인이라며 미움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마텐스 가문 특유의 기벽이나 편견을 공유할 수 없었다. 산맥을 뒤흔드는 뇌우조차 예전처럼 그를 고취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주변 환경에 짓눌려 우울해했으며, 알바니에 있는 친구에게 부모님의 집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담은 편지를 자주 쓰곤 했다.

1763년 봄, 얀 마텐스의 친구이자 올버니에 살던 조나단 기포드는 서신이 끊긴 마텐스의 소식에 걱정이 깊어졌다. 특히 마텐스 저택 내부의 열악한 상황과 끊이지 않는 불화 소식을 접한 뒤로는 더욱 그러했다. 기포드는 직접 얀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말을 타고 산악 지대로 향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9월 20일 템페스트 산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이미 형편없이 퇴락한 상태였다.

그곳에서 기포드는 불결한 짐승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기괴하고 음침한 눈을 가진 마텐스 일가를 마주했다. 그들은 알아듣기 힘든 거친 목소리로 얀이 죽었다고 말했다. 일가 사람들은 얀이 지난 가을 벼락을 맞아 죽었으며, 지금은 방치된 채 움푹 패어버린 정원 뒤편에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방문객인 기포드를 무덤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비석 하나 없이 황량하기만 했다.

마텐스 일가의 태도에서 무언가 불쾌하고 의심스러운 기운을 느낀 기포드는 일주일 뒤, 삽과 곡괭이를 챙겨 그 무덤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마치 잔혹하고 난폭한 타격에 처

참하게 으스러진 해골을 발견했다. 결국 올버니로 돌아온 기포드는 마텐스 일가가 친척을 살해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법적 증거는 부족했으나, 이야기는 시골 마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마텐스 가문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 누구도 그들과 거래하려 하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그들의 저택은 저주받은 곳이라 하여 모두가 기피했다. 멀리 떨어진 언덕 너머로 가끔씩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니, 마텐스 가문은 어떻게든 영지에서 나는 생산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았다. 이 불빛들은 1810년 무렵까지도 관찰되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사이 저택과 산 주변에는 악마적인 전설들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곳을 평소보다 두 배는 더 조심하며 피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온갖 괴담을 그곳에 덧씌웠다. 1816년, 무허가 거주민들이 불빛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전까지 그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조사를 위해 찾아간 일행은 저택이 버려진 채 일부는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 유골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분명했다. 일족은 이미 수년 전에 이곳을 떠난 듯 보였으나, 임시로 덧댄 다락방들은 이주하기 전 그들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썩어가는 가구와 여기저기 흩어진 은식기들은 주인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음을 증명하며, 그들의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퇴보했는지를 드러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마텐스 일족은 사

라졌지만, 저주받은 저택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산맥의 타락한 자들 사이에서 새롭고 기괴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자, 그 공포는 더욱 극심해졌다. 저택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버려진 채, 두려움의 대상이 된 채, 그리고 얀 마텐스의 복수심에 불타는 망령과 결속된 채로 말이다. 내가 얀 마텐스의 무덤을 파헤치던 그날 밤에도,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 * * * *

나는 나의 이 길고 지루한 발굴 작업을 어리석은 짓이라 묘사했다. 목적이나 방식 면에서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얀 마텐스의 관은 금방 파헤쳐졌고, 이제 그 안에는 먼지와 초석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령을 불러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나는, 그가 누워 있던 자리보다 더 깊은 곳을 비이성적이고 서투른 손길로 파헤쳐 내려갔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그저 밤마다 유령이 배회하는 어떤 남자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기분뿐이었다.

삽과 발이 땅 밑을 뚫고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었는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곳에 지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의 미친 이론들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살짝 넘어지는 바람에 랜턴은 꺼져 버렸지만, 나는 휴대용 전기 전등을 꺼내 들었다. 전등 빛이 비춘 곳에는 양옆으로 끝없이 뻗어 나가는 좁고 낮은 수평 터널이 있었다. 사람이 몸을 비틀며 지나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순간 결코 시도하지 않았겠지만, 잠복하는 공

포를 파헤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나는 위험도, 이성도, 청결함도 모두 잊어버렸다. 나는 집이 있는 방향을 택해 좁은 굴속으로 무모하게 기어 들어갔다. 눈앞의 전등을 가끔 비춰보는 것 외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빠르게 나아갔다.

무한히 심연 같은 땅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의 광경을 대체 어떤 언어로 묘사할 수 있을까. 시간도, 안전도, 방향도, 명확한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아득한 어둠이 뒤엉킨 구덩이 속을 미친 듯이 기어 다니며, 손을 휘저어 헤집고 몸을 뒤틀며 쌕쌕거리는 그 모습을 말이다. 그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나, 그것이 바로 내가 처한 현실이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상태로 지낸 나머지, 삶이라는 것이 아득한 옛 기억처럼 희미해졌고, 어느덧 밤의 심연 속에 사는 두더지나 벌레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실로 끝도 없는 몸부림 끝에, 우연히 잊고 있었던 전기 램프를 건드려 불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램프의 불빛은 눈앞에 굽이치며 길게 뻗은, 진흙이 굳어버린 굴을 따라 기괴한 빛을 뿌렸다.

한참을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가느라 배터리가 거의 바닥나갈 무렵, 통로가 갑자기 가파른 오르막으로 바뀌며 나아가는 방식도 달라졌다.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나는 아무런 예비도 없이 저 멀리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악마 같은 빛을 목격했다. 꺼져가는 랜턴이 만들어낸 두 개의 반사광이었다. 그 빛은 불길하고도 분명한 광채를 내뿜으며, 내 머릿속에 미칠 듯이 모호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도망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발길을 멈췄다. 눈동자가 다가오고 있었

다. 하지만 그 눈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오직 발톱 하나만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발톱은, 실로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그때 머리 위 먼 곳에서 희미한 굉음이 들려왔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그것은 광기 어린 분노로 치닫는 템페스트 산의 거친 천둥소리였다. 한동안 계속 위로 기어 올라간 탓인지, 이제 표면이 꽤 가까워져 있었다. 둔탁한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그 눈들은 공허하고도 잔인한 시선으로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알았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불러낸 그 천둥이 나를 구했다. 끔찍한 기다림 끝에, 보이지 않는 하늘 너머에서 산맥을 향해 자주 내리꽂히던 번개 중 하나가 터져 나왔다. 이전에도 이곳저곳에서 그 여파로 뒤틀린 흙더미나 다양한 크기의 섬전암을 본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번개는 그 저주받은 구덩이 위 지표면을 거대한 괴물의 분노처럼 찢어발겼다. 눈앞이 멀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미끄러지고 뒤섞이는 흙더미 속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쳤다. 그러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나를 진정시켜 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익숙한 곳, 즉 템페스트 산 남서쪽 사면의 나무 한 그루 없는 가파른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번갯불이 무너져 내린 땅과, 숲이 우거진 높은 사면에서부터 길게 뻗어 내려오던 기묘하고 낮은 언덕

의 잔해를 비추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는 내가 그 치명적인 지하 묘지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수 있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뒤섞인 흙더미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남쪽에서 멀리 붉은 빛이 풍경 위로 번쩍이며 터져 나왔을 때도, 나는 내가 방금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 채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틀 뒤, 무단 거주자들이 그 붉은 섬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말해주었을 때, 나는 곰팡이 굴과 발톱, 그리고 눈알을 보았을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 공포는 그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함의 때문에 더욱 거대했다.

나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그 낙뢰 이후, 2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는 공포의 광란이 몰아쳤다. 이름 모를 괴물이 나무 위에서 지붕이 허술한 오두막 안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괴물은 어떤 짓을 저질렀으나, 무단 거주자들이 광기에 휩싸여 괴물이 도망치기 전에 오두막에 불을 질러버렸다. 발톱과 눈알을 가진 그 존재가 땅속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괴물은 오두막에서 그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4. 눈동자에 서린 공포

템페스트 산의 공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그곳에 도사린 두려움을 홀로 마주하려 했다면 내 정신은 결코 정상일 리 없다. 그 공포가 형상화된 존재 중 적어도 둘이 파멸했다 한들, 온갖 악마적 형상이 뒤섞인 이 아케론(Acheron) 같은 곳에서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사건이 전개되고 진실이 드

러날수록, 그 기괴함은 더욱 끔찍해져만 갔고 나는 오히려 더 큰 열망을 품은 채 추적을 계속했다.

그 눈과 발톱이 가득한 지하 묘지를 공포에 질려 기어 나온 지 이틀 뒤,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눈들이 나를 노려보던 바로 그 순간, 20마일 떨어진 곳에 어떤 존재가 악의를 품고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경이로움과 매혹적인 기괴함이 뒤섞여 있어, 거의 즐거운 감각에 가까울 정도였다.

때때로 악몽의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휘감아 낯선 죽은 도시의 지붕 위로 몰아붙이고 니스의 비웃는 심연을 향해 내던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꿈이 예고한 파멸의 흉측한 소용돌이에 몸을 맡긴 채 입을 벌린 무저갱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안도감을 주며 심지어 즐거움마저 느끼게 한다.

템페스트 산에서 겪은 깨어 있는 악몽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 두 괴물이 출몰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결국 미친 듯한 갈망에 사로잡혔다. 저주받은 땅의 흙 속으로 몸을 던져, 독기 어린 토양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비웃고 있는 그 죽음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얀 마텐스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예전에 파헤쳤던 곳을 다시 팠으나 허사였다. 대규모 붕괴가 일어난 탓에 지하 통로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비에 씻겨 내려온 흙이 파낸 구덩이를 메워버려 그날 내가 얼마나 깊이 팠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 괴물이 불타 죽었다는 먼 마을까지 힘들게 찾아갔지만, 고생한 보람은 거의 없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오두막의 잿더미 속에서 뼈 몇 조각을 발견했으나, 괴물의 것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괴물에게 희생된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인간의 완전한 해골 외에도, 분명 한때 인간의 두개골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또 다른 뼈 조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괴물이 급히 사라지는 모습은 목격되었지만, 그 형체가 정확히 어떠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괴물을 언뜻 본 이들은 그저 악마라고 불렀을 뿐이다. 괴물이 숨어 있었던 거대한 나무를 조사해 보았으나, 특별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검은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이번만큼은 그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나무 기둥들과, 땅속으로 파고들기 전 악의적으로 뒤엉켜 있는 거대한 뱀 같은 뿌리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다음 단계로 내가 할 일은 죽음이 가장 맹렬하게 들이닥쳤던 그 버려진 마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재조사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아서 먼로가 무언가를 목격했으나, 차마 글로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전의 수색도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제 내게는 검증해야 할 새로운 단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무덤 속을 기어 다니며 겪은 그 끔찍한 경험은, 그 괴물질의 양태 중 적어도 하나는 지하에 사는 생물이었다는 확신을 내게 심어주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11월 14일, 불운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콘 산과 메이플 힐의 경사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나는 메이플 힐의 산사태 지역에 널브러진 흙더미를 유심히 관찰했다.

수색을 이어간 오후 내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메이플 힐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곡 너머 템페스트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느덧 황혼이 찾아왔다. 화려한 노을이 지나간 자리로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올랐다. 달빛은 은빛 홍수가 되어 평원과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그리고 여기저기 솟아 있는 기이하고 낮은 언덕들을 뒤덮었다. 아르카디아의 풍경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나로서는 그 광경이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나를 조롱하는 듯한 달과 위선적인 평원, 곪아 터진 산, 그리고 저 불길한 언덕들을 증오했다. 모든 것이 역겨운 전염병에 오염된 듯 보였고, 뒤틀린 숨은 힘들과 불쾌한 결탁을 맺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달빛이 내려앉은 전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문득 지형의 어느 한 부분이 기이한 형태와 배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지질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으나, 나는 처음부터 이 지역에 솟아오른 기묘한 언덕과 둔덕들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 언덕들은 템페스트 산 주변에 꽤 넓게 퍼져 있었다. 평지보다는 산 정상 부근에 더 밀집해 있었는데, 아마도 선사 시대의 빙하가 그 기괴하고도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막아내기에 정상 부근의 저항이 더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길게 늘어진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운 낮은 달빛 아래에서, 나는 언덕들이 이루는 점과 선들이 템페스트 산의 정상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

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 정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심점이었다. 그곳으로부터 언덕의 선과 열들이 무질서하고 끝없이 뻗어 나가고 있었는데, 마치 불길한 마텐스 저택이 공포의 촉수를 눈에 보이게 뻗어낸 듯한 형상이었다. 그런 촉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나는 이 언덕들이 빙하 작용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믿는 이유를 차분히 분석해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다.

분석하면 할수록 믿음은 오히려 사라졌다. 새롭게 열린 나의 이성 위로, 겉모습만 보고 짐작한 기괴하고 끔찍한 유추들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지하 세계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어느덧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광기 어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 두더지 굴이라니… 그 저주받은 곳은 분명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을 거야…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저택에서의 그날 밤… 베넷과 토비가 먼저 끌려갔지… 우리 양옆에서…"

나는 내 곁에 가장 가깝게 뻗어 있는 흙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절박하고 떨리는 손길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거의 환희에 찬 몸짓이었다. 파헤치고 또 파헤치던 그때, 나는 마침내 터널 혹은 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지옥 같았던 그날 밤, 내가 기어갔던 바로 그 통로와 똑같은 형태였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비명을 내질렀다.

그 뒤로 나는 삽을 손에 쥔 채 미친 듯이 달렸던 것을 기억한다. 달빛이 비치는 구릉진 초원을 가로지르고, 흉측한 무덤들이 점철된 들판을 지나, 귀신이 나올 듯 음산하고 가파른 숲의 심연을 헤치며 달렸다. 나

는 비명을 지르고 숨을 헐떡이며, 저 끔찍한 마텐스 저택을 향해 몸을 날리듯 달려갔다. 가시덤불로 뒤엉킨 지하실 곳곳을 이성도 잊은 채 파헤쳤던 기억도 난다. 그 무덤들이 이루는 악의적인 우주의 핵심과 중심을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그러다 통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웃음을 터뜨렸는지도 기억한다. 낡은 굴뚝 밑바닥,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 내가 우연히 가지고 있던 외로운 촛불 아래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그 구멍을 찾아냈을 때 말이다. 그 지옥 같은 벌집 속에 무엇이 여전히 숨어 천둥소리가 자신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미 두 명이나 죽었으니, 아마 그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공포의 가장 깊숙한 비밀에 도달하겠다는 타오르는 결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공포가 실재하며, 형체가 있고,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다시금 확신했다.

손전등을 들고 즉시 혼자서 그 통로를 탐험할지, 아니면 이 탐색을 함께할 부랑자 무리를 모아볼지 망설이며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밖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고민을 끊어놓았다. 바람은 촛불을 꺼뜨렸고,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머리 위 틈새로 비치던 달빛마저 사라졌다. 운명을 예감케 하는 불길한 경보처럼, 멀리서 천둥이 낮게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생각들로 뒤엉켰고, 나는 홀린 듯 지하실 가장 구석진 곳을 향해 더듬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내 시선만큼은 굴뚝 밑바닥에 뚫린 그 끔찍한 구멍에서 한시도 떼지 못했다. 번갯불이 숲을

뚫고 들어와 벽 상단의 틈새를 비출 때마다, 부서져 내리는 벽돌과 병적인 잡초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매 순간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켰다. 폭풍은 무엇을 불러낼 것인가. 아니, 불러낼 것이 무엇이라도 남아 있기는 한 것인가. 번갯불이 번쩍이는 틈을 타, 나는 빽빽하게 우거진 수풀 뒤로 몸을 숨겼다. 그곳이라면 들키지 않고도 그 구멍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다.

* * * * *

하늘에 자비가 있다면, 언젠가는 내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지워주기를. 그리하여 내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둥이라도 치는 날에는 아편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구덩이 속에서 쥐처럼 허겁지겁 달려온 악마였다. 지옥 같은 헐떡임과 억눌린 끙끙거림이 들리더니, 굴뚝 아래 뚫린 구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나병 환자처럼 뒤엉켜 터져 나왔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밤의 피조물들이 쏟아내는 유기적 부패의 홍수였다. 인간의 광기와 병적인 망상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검은 주술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이고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뱀의 점액처럼 들끓고, 끓어오르고, 요동치며, 거품을 일으키며 입을 벌린 구멍 밖으로 밀려 나왔다. 마치 패혈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고, 지하실의 모든 출구를 통해 흘러넘쳤다. 그렇

게 쏟아져 나온 것들은 저주받은 한밤중의 숲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공포와 광기, 그리고 죽음을 뿌려댔다.

그것들이 대체 몇 마리나 있었는지 신만이 아실 것이다. 분명 수천 마리는 됨직했다. 희미하게 번뜩이는 번개 사이로 그 무리가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놈들의 밀도가 낮아져 개별적인 생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나는 그것들이 왜소하고 기형적인 털투성이 악마 혹은 유인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원숭이류를 기괴하고 사악하게 뒤틀어 놓은 괴물 같았다.

놈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뒤처져 오던 마지막 무리 중 하나가 익숙한 솜씨로 약한 동료를 잡아먹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조차, 비명 섞인 울음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른 놈들은 그놈이 남긴 먹잇감을 낚아채 침을 흘리며 탐욕스럽게 먹어 치웠다.

공포와 혐오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음에도, 나의 병적인 호기심이 결국 승리하고 말았다. 정체 모를 악몽이 도사리는 저 지하 세계로부터 마지막 괴물이 홀로 기어 올라왔을 때, 나는 자동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둥소리에 맞춰 방아쇠를 당겼다.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붉고 끈적한 광기의 그림자들이 끝없이 피로 물든 보랏빛 번개 하늘의 복도를 가로지르며 서로를 뒤쫓는다. 형체 없는 환영과 기괴한 기억 속 장면들이 만화경처럼 어지럽게 변이한다. 수백만 마리의 식인 악마들로 들끓는 땅에서 뱀 같은 뿌리를 뒤틀며 이름 모를 즙을 빨아올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괴물 같은 참나무 숲이 보인다. 폴립처럼 변질된 지하 핵으로부터 둔덕 같은

촉수들이 더듬거리며 기어 나온다. 악의적인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벽과 곰팡이 식물로 숨이 막힌 악마의 아케이드 위로 미친 듯한 번개가 내리친다.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다. 무의식 중에 나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한 그 본능에. 구름이 걷힌 고요한 별빛 아래 잠든 평화로운 마을로 나를 이끌어준 그 본능에 말이다.

[삽화: "그것들은 붉은 광기에 휩싸여 꿈틀거리는 그림자들이었다."]

일주일 만에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나는 알바니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오게 하여 마텐스 저택과 템페스트 산의 꼭대기 전체를 날려버리라고 명령했다. 발견되는 모든 구멍 난 굴들을 메워버리고, 존재 자체가 이성을 모독하는 듯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나무들도 모두 파괴하게 했다.

그 일들이 끝난 뒤에야 나는 겨우 잠을 좀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잠복하는 공포 속에 담긴 이름 모를 비밀을 기억하는 한, 진정한 휴식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괴물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터다. 그놈들을 완전히 박멸했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세상 어딘가에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구 어딘가에 있을 미지의 동굴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악몽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

이제 나는 우물이나 지하철 입구만 봐도 몸서리가 쳐진다. 의사들은 왜 나에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약이나, 천둥처럼 울리는 내 머릿속을 진정시켜 줄 약을 주지 않는 것일까.

말할 수 없는 형체의 괴물을 쏜 뒤, 손전등 불빛 속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망상에 빠지기까지 거의 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물체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끔찍했다. 날카로운 노란 송곳니와 엉킨 털을 가진, 지저분하고 창백한 고릴라 같은 형상이었다. 그것은 포유류가 퇴화하여 도달한 최악의 결과물이었다.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고립된 채 번식하고, 증식하며, 서로를 잡아먹으며 살아온 끝에 탄생한 공포스러운 결실이었다. 생명의 이면에 도사린, 으르렁거리는 혼돈과 비웃는 공포가 형상화된 존재였다.

그것은 죽어가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지하에서 나를 응시하며 흐릿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던 그 다른 눈들과 똑같은 기묘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한쪽 눈은 푸른색이었고, 다른 쪽 눈은 갈색이었다. 그것은 옛 전설에 나오는 마텐스 가문의 서로 다른 눈이었다. 나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거대한 공포의 해일 속에서, 사라진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끔찍하고 천둥에 미쳐버린 마텐스 가문의 최후를 말이다.